

# 韓國 傳統寺刹의 人工池 研究

권태철 \* · 홍광표 \*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the Ponds of the Korean Traditional Temples

Kwon, Tae-Cheol\* · Hong, Kwang-Py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ponds appeared in the Korean traditional temples.

Summarize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ed that the location of ponds of the Korean traditional temples is, in general, in both the entry space and transitional space of temple. And it is considered that such configurations of the location of ponds were done intentionally in order that the ponds should have a significance as same as the concept that a natural mountain stream separates the sacred place and the secular world.

Second, since the size of the ponds appeared in the temples are considered to be what is transformed from the original one,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real size. However, it is judged that since ponds we see at present played an element of the total space of a temple it is deemed that no significant change of the size of ponds have happened if the size of the structure a temple itself has ever changed.

Third, it appeared that the forms of the temple's ponds are diversified in a square, oval, egg-shaped one, round shape(circle), natural shape, etc. And it is identified that most of the ponds inspected for this study appeared to be in shapes of an oval, egg-shaped one, and round shape which take a typical curve.

Fourth, regarding the temples whose origins are from the Baekje dynasty or Silla dynasty among the objects of this case study, there appear some uniform styles for each temple respectively. For example, in both the Junglim Temple's twin pond(定林寺 雙池) and the Mireuk Temple's twin pond(彌勒寺 雙池) which were built in the Baekje dynasty appears a twin-pond in a square shape, and in the Bulkuk

temple(佛國寺), Haein temple(海印寺), Tongdo temple(通度寺), etc. which were built in the Silla dynasty appears the ponds in an egg-shape one.

Fifth, regarding the function of the ponds appeared in the temples, the ponds are characterized with a lotus pond(蓮池), reflecting pond(影池), and pond complex(蓮·影池). In consideration of the 20 ponds in the 15 places of this study's objects, there are 8 lotus ponds(蓮池), 6 reflecting ponds(影池), and 6 ponds complex(蓮·影池).

*Key Words : Location of pond, Form, Lotus pond, Reflecting pond, Pond complex*

## I. 序論

###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물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元素로서, 도(道)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철학적·종교적 사상을 비유하는 매체로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규복, 1990:86). 이러한 까닭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傳統造景空間에 도입된 물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물론 象徴의 景觀을 조성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因子로 여겨져 왔다.

특히,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寺刹에 도입된 물은 佛敎에서 지향하고 있는 제반 宗教의 意味를 전달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비보나 염승의 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風水의 概念에서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寺刹에 도입된 물에 대한 해석은 佛敎가 가진 思想性和 哲學性 그리고 象徴性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擇地法을 이해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韓國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물리적인 形式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사·분석하고 해석하여 우리 나라 寺刹에 도입되어 온 傳統의 水景觀의 形式에서 나타나는 特徵과 類型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人工池의 形式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傳統寺刹의 水景觀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現代造景의 水景觀 연출을 위한 설계언어로 제공됨으로써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水景觀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傳統寺刹을 택하게 된 이유는 寺刹이 佛敎文化를 물리적인 形式으로 구체화한 장소이고 佛敎文化가 우리 나라의 傳統文化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寺刹造景이 우리 나라 造景의 원형(原形)으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宮闕이나 別墅에서 나타나는 水景觀 硏究에 비해 傳統寺刹의 水景觀에 관한 研究가 많지 않아 傳統寺刹의 水景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측면 역시 傳統寺刹을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된다.

### 2. 事例研究對象 지(池)의 選定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傳統寺刹에서 조영되었던 人工池에 대한 원형(原形)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寺刹의 人工池에서 발견되는 形式을 調査·分析하여 그것들의 특징을 찾아 유형화하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위한 人工池의 선정은 연구의 성과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위해 선정한 人工池는 총 15개소이다. 선정과정을 보면, 우선 현존하고 있는 人工池 중에서 傳統性이 뚜렷이 발견됨은 물론 특징적인 現象이 발견되는 人工池를 찾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초자료가 풍부하고 원형해석(原形解譯)의 가치가 있는 人工池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선정된 事例研究對象 지(池)는 표 1과 같다.

표 1. 事例研究對象 지(池)<sup>1)</sup>

번호	人工池	지역	창건연대	人工池조성시기	비고
1	乾鳳寺의 池	강원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신라 경덕왕 17년 (758)		
2	淸平寺의 南池	강원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	고려 광종 24년 (973)		
3	傳燈寺의 池	경기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264(고려)	1621 중수	
4	開心寺의 池	충남 서산군 운산면 신창리	13세기	1940년대	
5	定林寺址의 雙池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동	7세기 초		
6	彌勒寺址의 雙池	전북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백제 무왕 (7세기 초)		
7	實相寺의 池	전남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신라(828)	1884 (고종21)	
8	佛影寺의 影池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651	1611	
9	佛國寺의 九品蓮池	경북 경주시 전현동	770(신라)	770	
10	海印寺의 影池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신라(802)	1480	
11	通度寺의 九龍池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646(신라)	1652	
12	通度寺의 圓形池	"	"	"	영산전 앞
13	龍華寺의 池	경남 충무시 봉평동 404	1617	1628	
14	白羊寺의 池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제 무왕 33년(632)	1917	
15	仙巖寺의 三印塘	전남 승주군 쌍암면 죽학리	9세기	1825	
16	仙巖寺의 雙池	"	"	"	
17	仙巖寺의 方池	"	"	"	삼성각 앞
18	仙巖寺의 自然形池	"	"	"	
19	松廣寺의 계담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고려 명종 27년(1197) 중창	1842	
20	松廣寺의 方池	"	"	"	화장실 앞

## II. 研究의 方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文獻調査는 연구대상이 되는 人工池를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寺刹에서 나타나고 있는 人工池의 조영에 대한 성립배경과 작용인자를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주로 寺刹의 역사와 조영인물 그리고 佛敎에서 지향하고 있는 종교적 의미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現地調査에서는 연구대상 人工池를 직접 답사하여 文獻研究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check list를 中心으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연구대상 人工池에 대한 配置圖가 부실할 경우에는 평판과 트랜시 등의 측량도구를 이용하여 조사자가 직접 실측하였으며, 그 결과를 도면화한 후 그 도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現象들을 調査하였다.<sup>2)</sup>

현지조사는 실측, 사진촬영, 면담, 現象에 대한 기록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調査된 결과에 대한 分析은 각각의 연구대상 人工池의 形式을 位置, 形態, 規模, 構造 등으로 구분하여 人工池의 形式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국면을 찾고, 그것을 다시 對象地간에 상호 비교한 후 人工池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작업은 조성시기, 장소, 위치와 형태를 중심으로 발견된 現象을 구분하고 그것을 공통적 속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人工池의 內容에 대한 해석은 각각의 연구대상 人工池를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人工池에서 발견되는 佛敎의 개념의 상징적 의미를 밝혔다.<sup>3)</sup>

### Ⅲ. 人工池의 形式分析 및 考察

#### 1. 位置

연구대상 人工池의 位置를 조사한 결과 寺刹의 進入 空間에서 人工池가 나타나는 곳으로는 淸平寺, 定林寺 址, 彌勒寺址의 人工池 등 8개소였다. 한편, 轉移空間에 위치하는 人工池는 乾鳳寺, 傳燈寺, 開心寺의 人工池 등 6개소였다. 또한 部空間에 위치하는 人工池는 6개소로 實相寺의 지(池), 通度寺의 九龍池와 靈山殿 앞의 圓形池 등이 그것이다. 위의 內容으로 보아 15군대 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20개소의 人工池 중에서 進入 空間에 위치하는 人工池가 8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이공간과 부공간에서는 각각 6개소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中心空間에서 人工池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나라 傳統 寺刹에서는 中心空間에 人工的으로 못을 조성하는 것은 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2 人工池의 位置 分析表

人工池	중심공간	부공간	전이공간	진입공간	비고
乾鳳寺의 池			○		
淸平寺의 南池				○	
傳燈寺의 池			○		
開心寺의 池			○		
定林寺址의 雙池				○	
彌勒寺址의 雙池				○	
實相寺의 池		○			
佛影寺의 影池				○	
佛國寺의 九品蓮池			○		
海印寺의 影池				○	
通度寺	九龍池	○			
	圓形池	○			
龍華寺의 池			○		
白羊寺의 池				○	
仙巖寺	三印塘		○		
	雙池	○			
	方池	○			
	自然形池		○		
松廣寺	方池	○			
	계담		○		

이처럼 중심공간보다는 주로 진입공간과 전이공간에 人工池가 造成된 것은 人工池가 통과외례와 관련된 조영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人工池는 寺刹의 시작을 알려주거나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로서 寺刹의 입구에 도입되거나 또는 中心空間으로 이행하는 전이공간에 도입되어 하나의 통과외례적 상징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볼 때 進入空間이나 轉移空間에 나타나고 있는 人工池는 자연계류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寺刹의 전면부에 위치하는 人工池는 자연계류 또는 수로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池)의 수원(水源)이 되는 자연계류의 물을 쉽게 인수(引水)할 수 있는 위치에 人工池를 조성하였기 때문이었다.

#### 2. 形態

연구대상 人工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形態는 方形으로서 이 형태는 乾鳳寺의 지(池), 定林寺址의 지(池), 彌勒寺址의 지(池) 등 10개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원래의 形態가 正方形池로 나타나는 人工池는 乾鳳寺, 實相寺, 仙巖寺 삼성각 앞 方池가 있으며, 長方形池는 開心寺와 龍華寺의 人工池에서 나타나고 있다. 彌勒寺址와 定林寺址의 方池는 正方形과 長方形이 같이 나타나는 쌍지(雙池)로 비대칭적 形式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方形의 人工池는 正方形과 長方形이 특별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寺刹의 전면부에 대칭적으로 方形의 雙池가 나타나는 定林寺址와 彌勒寺址의 雙池는 그 形式이 창건 당시의 水景觀 形式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寺刹에서 나타나지 않는 形式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대성을 보여주는 특징적 現象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이 雙池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山地寺刹에서 나타나는 溪流와 그 위에 가설한 다리의 機能을 동시에 지니는 形式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결국 이것은 개념적으로 聖과 俗을 연결하는 다리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橢圓形으로 나타나는 人工池로는 仙巖寺의 三印塘과 通度寺의 九龍池 그리고 佛國寺의 九品蓮池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원형과 유사한 形態를 가

표 3. 人工池의 形態 分析表

人工池	池의 형태	池의 갯수	다리의 유무	섬의 유무	비 고
乾願寺의 池	정방형		○		현재의 상태는 다리가 없어지고 두 개의 池로 나누어짐
淸平寺의 南池	사다리꼴형			○	3개의 괴석
傳燈寺의 池	방형			○	
開心寺의 池	장방형		○		통나무 다리
定林寺址의 雙池	정방형(西池) 장방형(東池)	雙池			
彌勒寺址의 雙池	정방형(東池) 장방형(西池)	雙池			
貫相寺의 池	정방형				
佛影寺의 池	자연형				
佛國寺의 九品蓮池	타원형				
海印寺의 影池	난형				
通度寺	九龍池	타원형	○		
	圓形池	원형			
龍華寺의 池	장방형				
白羊寺의 池	자연형				
仙巖寺	三印塘	타원형		○	
	雙池	정방형(東,西池)	雙池		
	方池	정방형			
	自然形池	자연형	雙池		
松廣寺	方池	장방형	雙池	○	화장실 증축시 다리개설
	계담	자연계류형			

진 곳으로 海印寺의 卵形池, 通度寺 영산전 앞의 圓形池를 들 수 있다. 이렇게 圓形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人工池 역시 그 당시의 형식적 特徵을 보여주는 하나의 水景觀 形式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松廣寺와 白羊寺의 人工池는 自然溪流의 形態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形式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淸平寺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다리꼴형의 독특한 形態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寺刹에서 보여지는 人工池의 形態와는 차이가 있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중(池中)에 섬이 나타나는 人工池로는 淸平寺의 南池, 傳燈寺의 人工池, 仙巖寺의 三印塘을 들 수 있는데 傳燈寺와 仙巖寺 池의 경우는 原形으로 보기 힘든 입장이고 淸平寺 南池의 섬은 3개의 괴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佛敎의 개념이 아니라 道敎 또는 神

仙思想의 影響으로 造成된 것으로 보여진다.

### 3. 規模

人工池의 면적은 대체적으로 50㎡ ~ 300㎡의 범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면적이 가장 큰 人工池는 彌勒寺址의 것으로서 東池가 2,050㎡, 西池는 2,166㎡에 달해 東池와 西池를 합한 면적이 4,216㎡ 정도나 된다. 한편, 면적이 가장 작은 人工池는 仙巖寺 삼성각 앞의 지(池)로 약 8㎡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

지(池)의 護岸 길이를 살펴보면 장축의 경우는 10m ~ 20m의 길이로 나타나고 있고 단축은 5m ~ 10m의 길이로 나타나고 있다. 호안이 가장 긴 人工池는 開心寺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변형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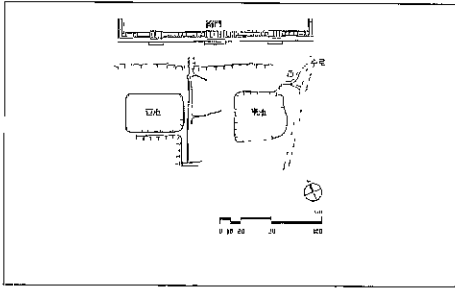


그림 1. 彌勒寺址 雙池  
(국립부여 문화재 연구소, 1996: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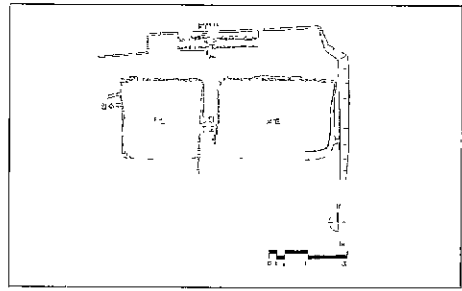


그림 2. 定林寺址 雙池  
(국립부여 문화재 연구소, 1996: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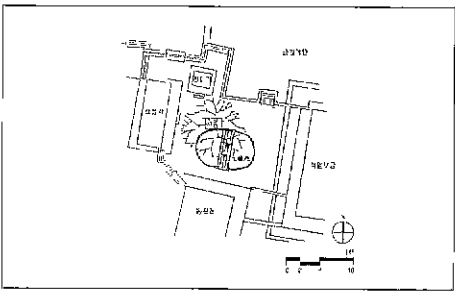


그림 3. 通度寺 九龍池  
(임충신 등, 198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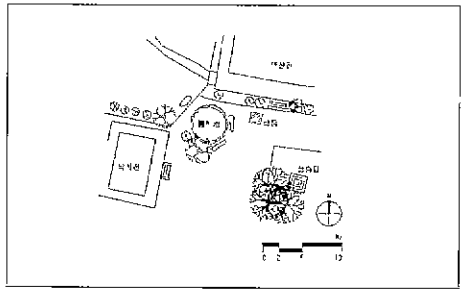


그림 4. 通度寺 圓形池  
(임충신 등, 19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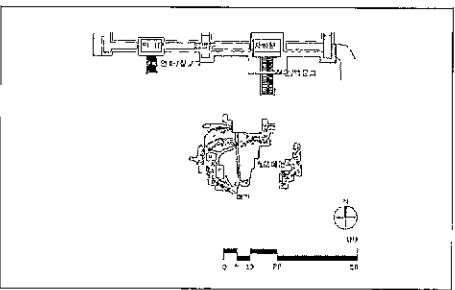


그림 5. 佛國寺 九品蓮池  
(문화재 관리국, 1976: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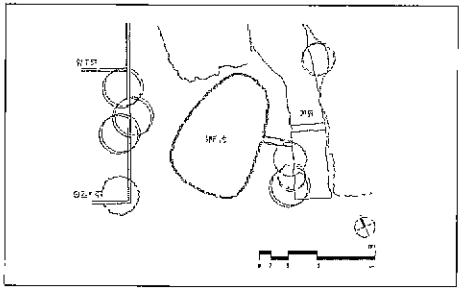


그림 6. 海印寺 卵形池  
(심우경과 강훈, 198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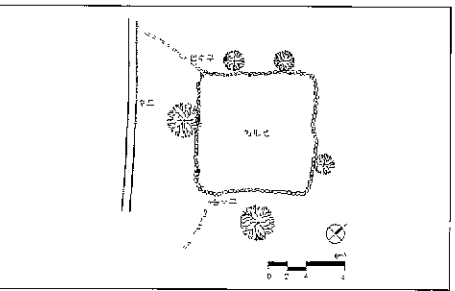


그림 7. 實相寺 方形池 (필자실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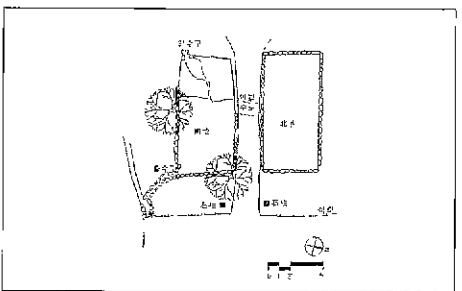


그림 8. 乾鳳寺 方形池 (필자실측도면)

면, 호안이 가장 긴 人工池는 역시 彌勒寺址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로서 그 길이는 41m~54.5m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 護岸의 장축과 단축의 비례는 正方形池의 경우는 1 : 1에 가까운 비례를 보이고 있으며, 長方形의 池는 대부분 1 : 1.5~1 : 2.8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築石의 높이는 대부분 70cm~150cm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수면의 높이는 35cm~100cm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構造

封象寺刹의 人工池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築石方式은 자연석을 사용한 침석쌓기 方式이었으며, 이 때 사용한 자연석은 어느 정도 다듬은 形態였다. 이중 乾鳳寺와 通度寺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는 비교적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서 사용되어진 돌은 그 形態와 축석면에서 다른 人工池에 비해서 장식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松廣寺의 계담은 축석부분이 다소 훼손되었지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築石의 상태와 전체적인 形態가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계담은 자연계류를 최대한 살리면서 水景觀을 造成한 장치라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人工池의 規模 分析表

人工池		면적		호안의 길이(m)			축석의 높이(cm)	수면의 높이(cm)	비 고	
		m <sup>2</sup>	평	단축	장축	비례(단장)				
乾鳳寺의 池	北池	54	16	5.1	11	1 : 2.2	98~136	51	원형(原形)은 方池이나 長池로 변형됨	
	南池	53	16	5	11	1 : 2.2	80	36		
淸平寺의 兩池		242	73	10~14	19	1 : 1.9	70~110	60~65		
傳燈寺의 池		63	19	6.5	7.6	1 : 1.1	140	60	섬면적포함	
開心寺의 池		500	151	7.1	70.4	1 : 10	110	15~30		
定林寺址의 池	東池	174.5	53	11.2	15.6	1 : 4	130	74		
	西池	132	40	11	12	1 : 1	135	86		
彌勒寺址의 池	東池	2,050	620	48	49~51	1 : 1	100			
	西池	2,166	655	41	54.5	1 : 1.3	85			
寶相寺의 池		155	47	12.6	12.8	1 : 1	110	85		
佛影寺의 影池										
佛國寺의 九品蓮池				25.5	39.5	1 : 1.5	200~300			
海印寺의 影池		200	60	7.3~12.6	18.3	1 : 1.5	60~160	40		
通度寺	九龍池	44.5	13	5.65	8.62	1 : 1.5	170	150		
	圓形池	17	5	4.68	4.68	1 : 1	125	100		
龍華寺의 池		136	41	7.6	20.5	1 : 2.6	75~130	15~45		
白羊寺의 池									자연계류	
仙巖寺	三印塘		343	103	14	31.5	1 : 2.2	150	80	섬면적포함(57 m <sup>2</sup> )
	雙池	東池	21	6	4.8	5	1 : 1		55	
		西池	22	6	4.5	5.1	1 : 1.1		50	
	方池		8	2.4	2.6	3.8	1 : 1.4	100	40	
	自然形池	北池	59	17.8	4.6	13	1 : 2.8			
		南池	126	38	9	19	1 : 2.1			
松廣寺	万池	115	34.7	7.7	20	1 : 2.6	150	120		
	계담	411	124.3	13	37	1 : 2.8	120	80	관석보와 우회각사이	

原形이 비교적 남아 있는 對象池를 中心으로 보았을 때 入水方式은 대부분 暗渠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出水方式도 暗渠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가 풍수적인 觀點에서 入水와 出水形式이 결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暗渠와 明渠의 入·出水 方式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現象으로 보여진다. 즉, 영지(影池)의 경우 入水を 暗渠로 하여 수면에 물결이 일지 않도록 한 것이다. 松廣寺의 계담을 장식적 측면에서 소폭포처럼 물을 流水시키는 것 등이 人工池의 功能性을 고려한 入·出水 方式으로 볼 수 있다.

5. 人工池 形式의 類型

事例研究對象 人工池의 形式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그 原形의 보존 상태와 시대적, 지역적인 배경이 달라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그 位置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形態가 原形이라고 하기 어렵고 原形을 추측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없는 傳燈寺, 開心寺, 佛影寺, 白羊寺, 仙巖寺 등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는 유형화 작업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人工池의 原形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과 원형을 유추 해석할 수 있는 現象이나 자료가 있는 寺刹의 人工池를 中心으로 유형화작업을 진행

표 5. 人工池의 構造 分析表

人工池	축석방식	축석재료	입수방식	출수방식	비 고	
乾鳳寺의 池	바른층쌓기	다듬은자연석	명거	명거		
淸平寺의 南池	자연석 쌓기	자연석(다듬은돌)	암거	명거	복원	
傳燈寺의 池	자연석 쌓기	자연석				
開心寺의 池	자연석 쌓기	자연석(다듬은돌)	암거	명거	주로 콘크리트로 처리하여 原形을 거의 볼 수가 없음	
定林寺址의 雙池	바른층쌓기	사고석	암거	암거	복원	
彌勒寺址의 雙池		명거	암거			
寶相寺의 池	첩석쌓기	자연석(다듬은돌)	암거	암거		
佛影寺의 影池	자연석 쌓기	자연석	암거	암거		
佛國寺의 九品蓮池						
海印寺의 影池	자연석 쌓기	자연석	암거	명거		
通度寺	九龍池	화강석농기	화강석(다듬은돌)	암거	암거	호안에 맞게 화강석을 가공
	圓形池	화강석농기	화강석(다듬은돌)	암거	암거	호안에 맞게 화강석을 가공
龍華寺의 地	첩석쌓기	자연석(다듬은돌)	암거	암거		
白羊寺의 池	자연석농기	자연석	자연계류	판석보를 통한 유수	돌쌓기의 상태로 보아 근래에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仙巖寺	三印塘	자연석 쌓기	강돌	암거	명거	입수조에 의해 인수
	雙池	자연석쌓기	자연석(견치석)	암거	암거	견치석은 근래의 것으로 보임
		견치석쌓기				
方池	첩석쌓기	자연석(다듬은돌)	암거	암거		
自然形池	자연석농기	자연석	명거	암거		
松廣寺	方池	첩석쌓기	자연석(다듬은돌)	암거	암거	
	계담	첩석쌓기	자연석	자연계류	판석보를 통한 유수	



하였다. 그 결과 사례연구대상 人工池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독특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두가지 유형은 지역성과 시대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각각의 형식적 특징은 매우 뚜렷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이 두가지 유형을 각각 백제형과 신라형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백제형은 백제시대에 창건된 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형식으로서,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보이는데 定林寺址와 彌勒寺址의 人工池가 이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 백제형 人工池에서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점은 雙池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며, 人工池가 回廊으로 둘러싸여진 寺域 전면에 位置하면서 진입동선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좌우 대칭의 形態로 나타나는 지(池)의 形式은 백제형의 人工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京南里寺址의 人工池 역시 이와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京南里寺址는 1983년에 發掘調査 되었는데 金堂址와 講堂址 앞에 東西로 長方形의 소형지(小形池) 4개가 발견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536). 이것으로 볼 때 進入空間의 좌우에 대칭으로 배치되는 方形의 지(池)는 백제계 人工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形式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라형은 백제형과 반대로 경상도지역에 위치한 寺刹의 人工池 형식이며 주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寺刹의 人工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佛國寺, 海印寺, 通度寺, 實相寺 등으로서, 이 유형의 가장 큰 特徵은 人工池의 形態라고 할 수 있다. 즉, 新羅寺刹인 佛國寺의 九品蓮池와 通度寺의 九龍池, 海印寺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타원형지(橢圓形池)가 나타

표 6 人工池의 類型 分類

유형	위치	형태	人工池	寺刹	비고
백제형	진입공간	□ □ (方形 雙池)	雙池	定林寺址 (7C)	
			雙池	彌勒寺址 (7C)	
신라형	진입공간	○ (橢圓形池)	九品蓮池	佛國寺 (770년)	
			影池	海印寺 (802년)	
	부공간	○, ○ (橢圓形池, 圓形池)	九龍池, 圓形池	通度寺 (646년)	
方池			實相寺 (828년)		
	전이공간	□ (方形池)	方池	乾鳳寺 (758년)	

타나고 있으며, 通度寺의 영산전 앞에 있는 지(池)는 원형(圓形)을 나타내고 있어 新羅寺刹의 人工池는 원형(圓形)을 기초로 한 定形的인 곡선의 形態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백제형 人工池가 주로 進入空間에 입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라형은 부공간, 전이공간, 전이공간 등 다양한 위치에서 人工池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IV. 人工池의 內容解釋

韓國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를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살펴볼 때, 연(蓮)을 심을 목적으로 조성된 人工池(蓮池)와 佛影思想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그림자가 비쳐지도록 만들어진 人工池(影池)로 대별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事例研究對象 지(池)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影池와 蓮池의 機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人工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人工池를 연·영지(蓮·影池)로 명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대상 지(池)가 기능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찾아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傳統寺刹의 人工池를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 세 가지 유형 각각이 과연 佛敎의 의미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지(蓮池)

蓮池는 한마디로 연꽃이 심겨진 人工池를 말한다.

표 7 人工池의 機能 分類

人工池	蓮池	影池	蓮·影池	투영대상물	비고
乾鳳寺의 池	○				
淸平寺의 南池		○		오봉산	
傳燈寺의 池	○				
開心寺의 池			○	만세루	
定林寺址의 雙池			○	석탑	
彌勒寺址의 雙池			○	석탑, 목탑, 용화산	
寶相寺의 池		○		목탑	木塔址
佛影寺의 影池		○		자연임석불	
佛國寺의 九品蓮池			○	다보탑, 범영루	
海印寺의 影池		○		우두산, 일주문	
通度寺	九龍池	○			
	圓形池	○			
龍華寺의 池			○	해월루	
白羊寺의 池		○		백양산, 쌍계루	
仙巖寺	三印塘	○			
	雙池	○			
	方池	○			
	自然形池			○	일주문
松廣寺	方池	○			
	계담		○		우화각, 임경당

이 蓮池에 심겨진 연꽃은 佛敎를 象徵하는 꽃으로 이 蓮池에 관련된 문화는 우리 나라에 중국으로부터 佛敎가 전래된 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최상범, 1995:34).

傳統寺刹에 造成된 蓮池는 부처님이 설하신 극락정토(極樂淨土)의 모습을 현실세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불가(佛家)에서는 이 蓮池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그러한 까닭에 많은 寺刹에서 蓮池가 조성되어져 왔다. 이렇듯 寺刹의 蓮池가 극락정토를 표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蓮池 조성을 위한 소의경전은 곧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 되는 바, 이 경전에는 極樂淨土에 있는 蓮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다. 한편, 『淨土三部經』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극락도(極樂圖)에서는 蓮池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어 寺刹에 도입된 人工池의 形式을 살펴볼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佛敎의 경전과 불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蓮池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寺刹의 공간구성이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蓮池 역시 부처님세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엄요소로 造成되었으며, 寺刹에서 蓮池의 機能을 가지는 人工池의 조성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事例研究對象 지(池) 가운데 蓮池로 보여지는 人工池는 乾鳳寺의 지(池), 通度寺의 지(池), 仙巖寺의 지(池) 등이다. 이 밖에 蓮池로 알려진 곳으로는 定林寺址와 彌勒寺址의 雙池가 있으며, 佛國寺의 九品蓮池도 發掘調査 결과 蓮池로 추정하고 있으나 문헌에 나타난 내용과 현장답사 결과 蓮池의 機能 이외에도 影池의 機能이 複合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乾鳳寺 蓮池의 位置는 낙서암 지역의 입구 부분에 位置하며, 2개의 장방형 풀로 이루어져 있으나 원래는 연지(蓮池)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의 연못이 있었고 지중(池中)에는 영월교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김현준, 1992:122). 마로 이 乾鳳寺 蓮池의 입구 앞 부분에는 2개의 石柱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남쪽의

石柱에는 '용사활지(龍蛇活地)'. 북쪽의 石柱에는 '방생장계(放生場界)'라는 글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리고 두 石柱의 뒷면과 측면 기둥에는 모두 여섯 자의 진언(眞言)과 함께 몇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석주에 새겨진 眞言은 觀世音菩薩의 육자대명왕진(六字大明王眞言)인 '옴나니반떼훔'이고, 문양은 연꽃을 비롯하여 '卍'자, 십바라밀도 중 성중원월(星中圓月), 좌우쌍정(左右雙井), 원월(圓月) 등이다. 이것을 볼 때, 乾鳳寺의 蓮池는 많은 象徵性이 내재된 人工池임을 알 수 있다. 즉, 乾鳳寺의 경우 衆生의 救濟를 위해 石柱에 새긴 십바라밀도와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옴나니반떼훔의 眞言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極樂의 세계를 나타내는 蓮池가 함께 어우러져 寺刹 내부의 宗教的 상징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있는 것이다.

通度寺의 경우에는 九龍池와 영산전 앞에 있는 圓形의 지(池)가 곧 蓮池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九龍池는 通度寺의 창건설과 연관되어 있어 개창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만약 이 蓮池가 개창시부터 있었다면 그 역사가 대단히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의 조영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영산전 앞에 있는 圓形의 蓮池 역시 九龍池와 같이 造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이 蓮池의 석조체료가 九龍池를 造成하는데 쓰인 護岸石과 동일한 형태와 석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通度寺에서 나타나고 있는 蓮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蓮池의 形態로 각각 橢圓形과 圓形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高麗時代에 그려진 몇 가지 景觀變相도(觀經變相圖)를 토대로 蓮池의 形態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極樂世界의 蓮池는 方形과 圓形이며 그 속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있음을 알 수 있다(홍광표, 1992:199). 變相圖에서 보이는 연못의 形態인 方形과 圓形은 佛敎의 우주관을 설명하는 만다라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도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橢圓形이나 圓形은 變相圖에서 나타나는 極樂의 못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仙巖寺에서 나타나는 蓮池는 進入路 변에 있는 설선당 옆의 雙池와 삼성각 앞의 蓮池 그리고 進入路 변의 三印塘을 들 수 있다. 설선당 옆의 雙池는 선암사 중창

건도기(仙巖寺 重創建圖記)에는 規模가 비교적 큰 橢圓形池로 표현되어 있으니 조선시대에 있었던 人工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있는 雙池의 조성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橢圓形池가 축소되면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삼성각 앞에 있는 蓮池는 重創建圖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蓮池의 주변에 식재된 소나무의 수령을 보면 비교적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蓮池는 重創建圖記가 작성된 후에 造成된 것으로 보여진다.

重創建圖記에 의하면 三印塘이 있던 자리는 長方形의 지(池)가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삼인당 형태는 타원형으로 이것이 언제 변형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후대에 長方形池를 토대로 해서 지금의 三印塘의 形態로 바뀐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三印塘은 지중(池中)에 섬이 있어 우리 나라 傳統寺刹의 水景觀의 形式과는 다른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영지(影池)

影池는 佛敎에서 신성시 여기는 佛, 塔, 山 그리고 殿閣 등의 그림자를 投影할 수 있도록 만든 人工池로 독특한 樣式의 景觀구성요소이다. 影池의 의미를 解釋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것은 影池에 投影되는 對象物이 된다. 즉, 影池는 지(池)로서의 단순한 의미가 아닌 投影對象物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점이 影池가 가진 특별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寺刹에서 나타나는 影池는 우리 나라에 佛敎가 전래 될 때부터 造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類型에는 불영지(佛影池), 탑영지(塔影池) 그리고 산영지(山影池) 등이 있다.

佛影池에 해당하는 人工池를 가진 寺刹은 佛影寺가 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佛影寺의 影池에는 境內를 둘러싸듯이 놓인 좌측의 능선 상에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자연암석의 그림자가 수면 위에 投影되고 있다. '불영사'라는 절 이름은 바로 이러한 佛影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불영사는 원래 구룡사(九龍寺)였으나 절에 있는 연못 정면의 서편에 부처님 형상의 바위 하나가 생성되어 그 바위가 항상 연못에 여러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므로 佛影寺라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대한불교신문 편집국, 1993:123). 아쉬

은 점은 이러한 佛影에 관계된 정확한 문헌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塔影과 관계가 있는 人工池는 實相寺와 定林寺址, 彌勒寺址, 佛國寺 등에서 보이고 있다. 定林寺址와 彌勒寺址, 佛國寺에서 나타나는 지(池)는 蓮池의 기능과 함께 影池의 機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蓮·影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實相寺의 지(池) 역시 影池의 機能을 가지는 人工池로서, 이 人工池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지(池)의 位置이다. 즉, 실상사의 人工池는 사천왕문을 지난 진입방향의 좌측 즉, 서쪽에 位置하고 있으며, 人工池의 동쪽에는 지금 發掘調査가 한창 진행중인 목탑지(木塔址)가 위치하고 있다. 이 影池와 木塔址의 位置는 만세루 터와 實相寺의 主佛殿인 보광전을 잇는 주축선에 직교되는 동서횡축선상에 位置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성으로 인하여 日出時 塔의 그림자는 方形의 지(池)에 投影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木塔과 影池의 직접적인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發掘調査의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상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塔影池는 佛影池와 더불어 의미적으로 佛敎의 상징성이 높은 장엄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山影과 관계된 人工池가 나타나는 對象寺刹은 淸平寺, 白羊寺로서 淸平寺는 오봉산의 산정인, 白羊寺는 鶴峰이 못에 投影되고 있다. 이러한 山影은 佛敎의 인 의미와 함께 山岳을 숭상했던 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예로부터 도를 닦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산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산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우리의 傳統的인 문화의 概念에서 살펴볼 때, 산은 불도(佛道)를 닦는 절, 神仙이 되기 위한 수양처, 신(神)의 힘을 얻는 무속 기도처 등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를 지닌 대상물로서 解釋된다(구미래, 1993:123).

또한 山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미산(須彌山)의 概念을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須彌山은 佛敎의 우주의 中心部 그 중앙에 位置한 우뚝 솟은 크나큰 봉우리로서 그 자체의 象徴 속에는 佛敎의 世界觀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정각스님, 1991:55-57).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山地寺刹은 수미산의 世界를 구현하여 왔다. 즉, 寺刹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主佛殿을 中心

으로 山과 연계하여 수직적 계층질서를 부여하여 寺刹이 입지한 山 그 자체를 須彌山으로 이해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山影池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山岳崇拜思想과 佛敎의 우주관인 須彌山의 概念이 형식상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影池 가운데에서 松廣寺, 仙巖寺, 海印寺 등에 있는 人工池는 건물을 투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 人工池는 대부분 일주문과 같이 寺刹의 입구성을 보여주는 건물들을 비치고 있다. 한편, 松廣寺의 人工池는 일주문으로 進入하는 좌측에 있는데, 이 지(池)는 우화각과 임경당에 의해서 형성되는 空間의 사이에 位置하고 있다. 이 지(池)의 수면에는 우화각, 임경당이 투영되고 있으며 시점의 변화에 따라서는 일주문도 投影되고 있다.

仙巖寺에서 나타나는 人工池 중 건물이 투영되는 지(池)는 一柱門 서쪽에 位置한 自然形池이다. 이 自然形池에는 일주문이 投影되고 있는데 비록 지금 보여지는 人工池가 원형(原形)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重創建圖記에도 이 位置에 지(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지금의 自然形池처럼 원래의 人工池도 역시 影池의 機能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海印寺는 '영지(影池)'라고 달려진 人工池가 있어서 가깝게는 일주문과 幢竿支柱 등이 投影되었고 멀게는 가야산 정상이 투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位置와 形態가 많이 훼손되어 정확한 現象을 관찰할 수 없는 상태이다.

### 3. 연·영지(蓮·影池)

蓮·影池는 앞에서 논한 蓮池와 影池의 機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彌勒寺址의 雙池, 定林寺址의 雙池, 佛國寺의 구품연지(九品蓮池)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한편, 龍華寺와 開心寺의 人工池 역시 어느 정도는 복합적인 機能을 가지는 蓮·影池의 概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彌勒寺는 미륵이 華林遠 아래서 成佛하여 용화삼회(龍華三會)의 설법으로 衆生을 濟度하는 彌勒信仰 즉, 주율왕생사상(兜率往生思想)을 현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百濟를 彌勒佛國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造營된 護國寺院이다. 이 彌勒寺의 배치는 蓮華藏

세계의 金剛輪山을 象徵한 龍華山을 背山으로 하고 도솔천의 내원인 彌勒淨土變相의 淨土曼荼羅式 蓮池를 절 앞에 배치하여 연화회(蓮華會)와 수상관(水想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蓮池를 지나서 彌勒下生信仰 즉, 龍華三會의 說法場으로 꾸미기 위해 독특한 삼원병렬식(三院並列式) 가람으로 造營되었다. 이렇듯 彌勒寺는 佛敎的인 상징성을 바탕으로 가람의 형태와 배치가 결정되어졌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人工池는 彌勒寺의 창건을 가능케 한 의도를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주목되는 바가 크다.

한편, 定林寺址와 彌勒寺址의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못 내부의 검은색 유기물 층에서는 나뭇잎, 마름열매, 연꽃줄기 등이 퇴적되어 있다고 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164.535-538). 하지만 이러한 사항만으로 이 人工池를 蓮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現場調査研究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彌勒寺址의 경우 發掘된 지(池)의 유구(造構)에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수면 위로 東·西의 石塔과 龍華山의 산정이 정확하게 投影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사진 1 참조). 이것을 보면 이 人工池에는 관망자의 시점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木塔뿐만 아니라 回廊과 함께 기타 殿閣들의 상당 부분이 投影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彌勒寺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定林寺址는 지금 볼 수 있는 東·西의 지(池)가 과거 原形의 位置를 토대로 복원한 것으로 지금은 중원(中庭) 중앙에 있는 石塔의 上輪部만을 投影하고 있다(사진 2 참조). 하지만 발굴시 池의 位置가 현 地盤의 높이에서 약

4.5m 아래에" 位置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래는 石塔의 상당 부분이 投影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定林寺址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位置는 回廊의 단 아래에 位置하였으며, 彌勒寺址와 마찬가지로 塔과 함께 기타 殿閣의 많은 부분들이 投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內容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彌勒寺址와 定林寺址의 경우는 연꽃의 흔적만 가지고 단순히 蓮池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보여지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蓮池와 影池의 機能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蓮·影池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定林寺址와 彌勒寺址에서 보이는 人工池의 形式은 그 당시 하나의 類型으로서 전승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복합적인 機能의 蓮·影池는 佛國寺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佛國寺『고금창기(古今創記)』에는 "구품연지(九品蓮池)"라는 명칭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佛國寺의 人工池가 蓮池로서 佛敎의 상징화(象徵花)인 연화를 담은 그릇으로서의 機能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九品蓮池는 淨土信仰에서의 구품연대(九品蓮臺)에서 연유한 명칭이다. 이렇게 볼 때, 佛國寺 九品蓮池는 極樂淨土로 進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의 결과이다(홍광표, 1994:80). 이러한 佛國寺 九品蓮池의 복합적인 機能을 설명 할 수 있는 內容이 매월당 김시습(1434~1493)이 쓴 『佛國寺』라는 詩와 草衣(1789~1866)가 쓴 『불국사양고(佛國寺火囊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九品蓮池는 蓮池의 機能과 함께 泛影樓와 釋迦塔(無影塔) 등이 수면에 投影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造營한 影池의 機能



사진 1 彌勒寺址 蓮·影池(1998.10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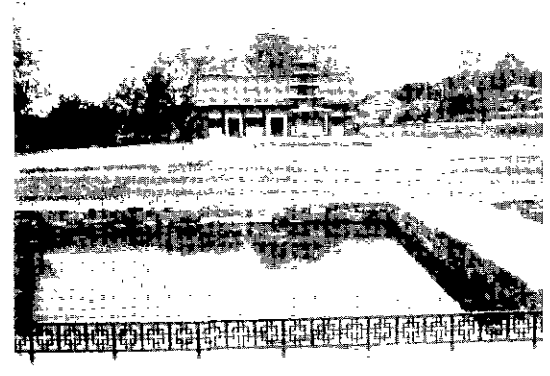


사진 2. 定林寺址 蓮·影池(1998 10월 촬영)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人工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九品蓮池는 佛敎의 이상향인 極樂淨土를 상징화하는 蓮池로서의 機能뿐만 아니라 신성시되는 사물 즉, 無影塔과 泛影樓 등의 殿閣들을 수면위에 投影시키는 影池<sup>7)</sup>로서 佛國寺의 종교적인 상징성과 신비성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V. 要約 및 結論

본 研究의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傳統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位置는 주로 進入空間과 轉移空間에 설정되었는 바, 이것은 人工池가 통과·례적 개념을 가진 조영물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 볼 수 있다. 즉, 人工池는 寺刹의 시작을 알려주거나 성·속(聖·俗)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둘째, 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形態는 方形·圓形, 卵形, 橢圓形, 自然形 등 다양하나 주로 方形과 圓形이 기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원형과 방형이 佛敎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도형이라는 사실과 상관된다. 한편, 지(池)의 數는 定林寺刹과 彌勒寺刹, 松廣寺의 화장실 앞의 지(池)에서만 雙池의 形態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내(池內)에 시설이 나타나는 곳은 乾鳳寺의 지(池)로서 지내(池內)에 영월교라는 다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自然溪流에서 나타나는 彼岸교(彼岸橋) 내지는 解脫교(解脫橋) 등의 機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寺刹에서 나타나는 다리와 섬은 모두 원형(原形)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寺刹의 人工池는 대부분 지내(池內)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人工池의 면적은 주로 100~300㎡의 크기로 나타나며, 護岸의 길이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人工池의 단축과 장축의 비례는 1 : 2.5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築石의 높이는 60~150cm의 범주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人工池의 형식을 유형화한 결과 우리 나라 傳統寺刹의 人工池는 백제형과 신라형으로 대별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유형화 작업은 시대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각의 유형에서는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백제형인 定林寺刹과 彌勒寺刹의 人工池는 方形의 雙池였으나, 신라형인 佛國寺, 海印寺, 通度寺 등의 人工池는 橢圓形池로 양자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써, 앞으로 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의 形式을 보면 그것이 어느 類型의 樣式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寺刹에서 나타나는 人工池는 그 기능면에서 연지(蓮池)와 영지(影池) 그리고 이들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나타나는 연·영지(蓮·影池)로 구분되는 바, 研究對象이 된 20개소의 人工池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蓮池는 8개소에서 나타나며 影池와 蓮·影池는 각각 6개소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기능에 따라 구분된 각각의 유형은 분명한 의미를 바탕으로 형식화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佛敎의 상징성이 내용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주1. 人工池의 명칭은 기존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있는 경우는 그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한 대상지에 여러 池들이 있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형태 위주로 이름을 명명하였다.

주2. 실측이 이루어진 淸平寺, 定林寺刹, 彌勒寺刹, 佛國寺, 海印寺, 通度寺 등의 寺刹에서는 기존의 실측도면을 사용하였으나 그 이외의 寺刹은 조사자가 직접 평판을 이용해 매치 평면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 대상사찰에서 트랜싯과 pole, 줄자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주3. 본 연구의 결과 우리 나라 傳統寺刹의 人工池는 蓮池, 影池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격이 複合적으로 나타나는 蓮·影池로 구분되었다. 여기에서 蓮·影池는 연구자가 편의상 명명한 것이다

주4. 몸마니만메흠이란 라마교 신자가 부르는 주문으로 연화수 보살에 귀의하여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던 주문 후에 6취에 들어가서 유전하는 재액을 벗는 공덕을 얻는다고 한다.

주5. 심우경·강훈의 논문은 불영의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적과 관련하여 몇가지 설화가 있다. 본시 불영승상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왔던 것 같다. 불의를 넣었다는 완탁가사지, 부처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다는 불영은 널리 숭상되어, 나같은 불영은 중국에 옮겨왔고, 해능이 불영에 관한 시도 있을 정도이다”(심우경과 강훈, 1989: 88).

- 주6. 定林寺址 관리인에 의하면 발굴당시 현 지반고에서 4.5m 아래에 池가 위치하고 있었으나 복원시 통행과 배수 등의 문제로 현재의 지반고 위에 복원하였다고 한다.
- 주7. 佛國寺의 九品蓮池가 실제 影池로서의 기능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은 1970년에 있었던 연못지에 투영된 釋迦塔의 그림자가 우연히 사진으로 촬영되어 影池로 확신을 할 수 있다(홍광표, 1994:80).

### 인용문헌

1. 강원도 춘성군(1984) 兩平寺實測調査報告書,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 구미래(1993)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3. 국립부여 문화재 연구소(1996) 彌勒寺 遺物發掘調査報告書Ⅱ, 국립부여 문화재 연구소.
4. 김동연 등(1982) 高麗初期에 축조된 文殊院 庭園에 관한 調査研究, 한국정원학회지(1).
5. 김현준(1992) 전통사찰총서 -강원도-,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6. 민경현(1991) 韓國庭園文化, 예경산업사.
7. 민경현과 우경국(1990) 文殊院 庭園의 構成과 特徵, 한국정원학회지(1).
8. 불교교계편찬위원회(1997) 佛敎思想의 理解,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9. 심우경과 강훈(1989) 韓國古代寺刹에 있어서 影池의 象徵의 意味와 修景의 價値, 한국정원학회지(7).
10. 이규복(1990) 韓國傳統景觀속의 물, 건축문화(110).
11. 정각스님(1991) 가람·절을 찾아서 I, 산방.
12. 정제훈(1992) 高麗時代의 寺刹, 환경과조경(71).
13. \_\_\_\_\_(1992) 百濟의 造形과 美術-百濟의 造園-, 공주대학교 박물관.
14. 최몽룡(1978)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 -九品蓮池發掘-, 문화재관리국.
15. 최상범(1995) 蓮池造景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 연구(3), 동국대학교 부설 사찰조경 연구소.
16. 충청남도(1981) 定林寺, 충남대학교 박물관.
17. 하재호(1997) 曹溪山 仙巖寺의 植栽景觀과 水景觀에서 發元되는 例外的 現象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홍광표(1992) 韓國傳統造景-韓國의 寺刹造景-, 도서출판 조경.
19. \_\_\_\_\_(1994) 佛國寺 蓮池에 관한 一考察, 한국정원학회지(16).
20. \_\_\_\_\_(1996) 東洋造景史-寺刹造景-, 문운당.
21. \_\_\_\_\_(1997) 寺刹의 蓮池에 관한 연구, 사찰조경연구원(5), 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22. 홍광표 등(1995) 韓國傳統寺刹의 水景觀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3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3. 홍윤식(1980) 현대불교신서60-極樂圖-,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24. Mircea Eliade. 이동하 역(1996) 聖과 俗, 학민사.
25. Mircea Eliade. 박규태 역(1991) 상징·신성·예술, 서광사.